

익산시, 안심 수돗물 공급 박차

평화동·마동 등 금강급수구역 노후 상수관 정비... 2030년까지 연간 230만 톤 누수 줄이고·23억원 수돗물 생산비 절감 '기대'

익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노후 상수관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6개년 계획으로 평화동과 마동, 동산동 등 구도심 일대 금강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신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강급수구역은 노후관 비율이 높고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사

정기술검토를 통해 대상지 및 총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2020년부터 신흥중불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에 총 605억 원을 투입한 결과 현재 사업전 사업대상지인 신흥급수구역의 유수율을 기존 66.5%에서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30만톤(일 평균 6,300톤)의 누수를 줄이고 23억원 가량의 수돗물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금강급수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10만톤의 누수를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흥급수구역과 함께 익산시 전체 유수율을 10% 이상 높여 연간 540만톤의 누수 저감과 54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수돗물 품질 향상과 상수도 경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비 확보를 통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수돗물을 안정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친환경농업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

서동수 의원 발의,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일 경제건설위원회서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를 신설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실천 농가나 단체,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실천 주체들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6조



(민간단체 육성) 관련 조문 중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이라는 표현은 '기술 및 자재를 개발·보급'로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책임 있는 실천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사무국 직원 20여명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9~10일 양일간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직무연수는 예산안·결산안 검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직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익힌 내용을 지역 현안과 정책에 적용해 보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150만원 지원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에 나선다.

9월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를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되며, 30만 원 초과~150만 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다이어يوم'으로 지급한다.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휴업·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31일까지 익산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주요 축제에 장진만 총감독 위촉

군산시간여행축제·군산팍팍페스티벌·수산물축제 전반 총괄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팍팍페스티벌 그리고 수산물축제를 다채롭고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장진만 감독을 총감독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팍팍페스티벌 그리고 수산물축제를 다채롭고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장진만 감독을 총감독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장진만 총감독은 대전 0시축제, 목포 항구축제, 장흥 물축제 등 다수의 인지도를 높여 축제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2024년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예술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능력으로 인정받는 축제전문가로 손꼽힌다.

장 감독의 임기는 올해 12월 초까지이며, 군산시 주요 축제의 기획과 운

영을 비롯해 축제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시간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군산이 가진 근대문화 유산과 접목한 희소성 있는 축제로서 다양한 콘텐츠와 축제 구성으로 군산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였지만, 회차를 거듭하며 다소 진부하다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었다.

이에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축제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신하고 이른바 재미있는, 볼거리가 넘치는 축제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족부터 연인까지 다양

한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4회째를 맞는 '군산팍팍페스티벌'은 아직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총감독 위촉을 통해 축제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군산을 대표하는 미식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축제 운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군산 수산물 축제(가칭)'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개최되며 군산이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되었다.

군산의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민들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번 총감독 위촉을 통해 축제 별 발전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 기획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축제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총감독 위촉을 통해 기존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산시 주요 축제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즐겁고 기억에 남는 축제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24 회계연도 시 결산검사 돌입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9일 의정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결산검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는 설경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우종삼 의원, 김영현 공인회계사, 조성수 세무사, 김도영 세무사, 진성봉 전 회계과장, 정진수 전 의회사무국장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회계검사 등 예산 집행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피드백 자료로 활용된다.

김우민 의장은 "결산검사를 통해 예

산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달라"며 "시민의 열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경민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재정운영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검사 결과가 정책 개선과 예산운영의 합리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중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하수 시설 냄새 잡는다... 113억원 투입

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장·펌프장 등 8곳 노후 설비 교체

익산시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5년(2022~2026년) 동안 113억 원을 투입해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취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노후 탈취 장비와 배관설비를 교체한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대상

지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북부·합열·금마·여산 하수처리시설 △1·2중계펌프장 등 총 8곳이다.

우선 지난 2월 금마와 여산 하수처리장에 대한 1차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시는 올해 안으로 북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1중계펌프장 등 2차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2중계펌프장, 합열처리장 등 3차 구간 공사를 추진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